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화학산업 발전의 전제조건

한국 화학산업계에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는가?
1990년대 초 한국 화학산업이 위기국면을 치닫고 있을 당시 똑같은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6~7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똑같은 의문을 던진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과연 한국 화학산업계는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로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인 그리고 사업환경적인 요인들이 바뀌는 만큼 변화하고 발전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 화학산업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만족스러울 정도로 변화되고 발전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아니하다고 단언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
화학기업이나 주변의 관련단체, 정부기관 등의 행태를 주시해보면 90년대 초나 지금이나 그것이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부지기로 발견되고, 비경쟁적인 그리고 독과점적인 특혜구조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모습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기업들은 생존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구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 화학제품이 국제상품이라는 점 외에도 국제시세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고 갈수록 무관세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국내 생산능력이 국내수요의 200%에 가깝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시장을 두드려야 하지만, 주변여건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변화의 바람을 이겨내고 오히려 변화의 바람을 몰아치는 능동적 자세전환이 필연적이다.
다만, 70~80년대의 독과점적 체질은 아직도 여전, 스스로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노라고 외치면서도 스스로 그 틀을 거부하고 공급과 가격을 담합하면서 까지 스스로의 이익 챙기기에 충실한 나머지「약자가 살 수 없는」천박한 산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화학인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석유화학을 제외한 플래스틱, Chemicals, 무기화학 등도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밀물작전이 계속되고「안면장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변화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아니올시다」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꾸준히 노력해 되지않는 일은 없다』는 설교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대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변화에 가장 둔감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관료집단과 사업자단체일 것이다. 이들은 경제나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든 안위에 걱정이 없고, 스스로가 무엇을 창출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기에 그저 세상 돌아가는대로 눈치껏 살아가면 그 뿐이다.
때문에 사회적 낭비요소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주위의 평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제에 넘고 분에 넘치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사회의 터줏대감이라도 되는 양 으시대기 일쑤이다. 더군다나 스스로의 이해에 따라서는 갖은 악행을 서슴치 않고 있음은 물론 산업계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선도하는 것이 무슨 애국행위라도 되는 양 콧대가 양양하기 이를데 없다.
따라서 한국 화학산업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몰염치하고 낭비적인 관료집단의 개혁과 함께 사회나 산업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생산기업의 녹을 축내는 사업자단체의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관료집단이나 단체들은 스스로의 위치에 만족하기 보다는 건전한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을 방해하고 음해함으로써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공작을 서슴치 않고 있다.

화학저널은 1997년 벽두에 서서 한국 화학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왜곡하는 집단을 척결하고 건전한 토양을 배양토록 노력할것임을 강조해둔다.

<화학저널 1997/1/6>